**3일기도**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 축일 준비를 위한**

**2017년 9월 3일**

****

**도입**

*구원의 계획을 위해*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스스로를 봉헌하신*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모든 이의 어머니요 자매가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목적 직무에 협력하는 삶을 산다.*

(생활규칙 8)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께 드리는 3일기도로 우리의 제 9차 총회의 거행과 준비를 위한 여정을 계속하며, 하느님의 말씀 텍스트와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르침, 우리 창립자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가르침, 9차총회의 작업도구를 통하여 성모님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자매인 마리아는 항상 함께하고 가까이 있다. 마리아는 찬미를 드리고 인류의 구원을 간청하며 아버지 곁에서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위해 전구한다. 우리는 성성의 길에서 친교 안에서 걸어가면서 마리아와 함께 자매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 전구한다.” (작업도구, n.18) 마리아는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는 마리아를 모방하고 모범으로 삼고 따르며, 삶과 사목적 봉사에서 마리아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마리아를 알고 마리아가 있는 곳, 즉 삼위일체 안에, 교회 안에서 구원된 이들 가운데 첫 피조물이며 그들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마리아와 함께 하는 우리의 여정이 시작된다.” (작업도구, n. 29)

이 지점으로부터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하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2017년 8월, 총원, 로마

**첫째날– 8월 31일 목요일**

*“마리아와 교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낳는다.”*

**성령청원**

**경청**

**루가복음에서**(1,26-38)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교회의 가르침에서**

교회의 모성은 역사에서 그의 연장선으로써 마리아의 모성과 연결된다. 교회는 성령의 생명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에 온순한 가운데 새로운 자녀들을 계속 출산한다.

교회는 어머니이다. 마리아의 모태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교회의 모태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것의 서막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형제들의 맏이이기 때문이며(로마8,29참조) 우리의 형제인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모범이며,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태어났다.(...) 교회는 어머니이고, 마리아는 어머니이다. 교회는 세례성사로 우리를 출산했기에 우리의 어머니이다.

(교황 프란치스코, 일반알현, 2014년 9월 3일)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가르침에서**

사목사도직이란 영혼을 돌보는 사제들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리아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양성하시며; 여러분의 성소는 교구 사제 성소자들을 포함한다. 여러분은 항상 더 모성적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의 성소가 총체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린 아이들의 영적 엄마가 되어야 하며; 신학생들의 양성을 도와야 하며; 젊은이들 안에서 성소의 씨를 발견하고, 서품 될 때까지 도와야 한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양성하고 그 후에는 사도들의 직무 안에서 그들을 따랐던 마리아의 성소에 항상 더 참여해야 한다. 만일 선한 목자의 어머니를 공경한다면 그분을 닮도록 하라.(...) 부르심 받은 이들을 따르고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성소에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라.

(PrP V, 1952, pp. 205-206)

**화답송**

말씀이 사람이 되시었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 말씀이 사람이 되시었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분은 우리가운데 당신의 장막을 치셨다.

* -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 말씀이 사람이 되시었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의 어머니 아리아께 의탁합시다**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위대한 업적을 모든 세대가 기리게 하소서. 당신은 동정이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며 선한 목자의 어머니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기르고 사랑하고 경청하고 따르셨으며,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십자가위에서 운명하실 때 지켜보셨습니다. 교회와 복음, 성사와 수도생활, 영원한 생명이 그분과 당신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은 천상교회의 기쁨이요 희망이며 순례하는 교회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당신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오니 저를 비추시고, 온순하고 충실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께 드리는 코론치나 1번)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엠마누엘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신 동정녀 안에서,

예언자가 예언한 표징을 보여주시고

마리아 위에 내려오신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의 살아있는 힘으로 또한 교회를 감싸 주시고,

세상 안에서 당신 사랑의 표지가 되게 해 주소서.

유일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둘째 날–월 1일 금요일**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어머니는 하느님의 방문을 세상에 가져온다.”*

**성령청원**

**경청**

**루가복음에서**(1,39-45)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차 큰 소리로 외쳤다. “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갈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교회의 가르침에서**

교회의 복음화 활동에는 마리아 ‘방식’이 있습니다. ... 그분께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속에서 하느님 성령의 자취를 알아보는 법을 아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이 세상안에, 인류역사안에, 우리의 일상 생활안에 깃든 하느님의 신비를 바라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자렛에서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여인이시며, 또한 다른읻ㄹ을 도우시고자 “서둘러”(루가1,39) 당신 마을을 떠나시는 도움의 성모님이십니다. 정의와 온유의 힘 , 관상과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의 힘이, 교회 공동체가 마리아를 복음화의 모범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88)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가르침에서**

이제 여러분이 현실적인 하느님 백성의 부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시키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 백성 안에서 아버지 즉 교황, 주교, 사제들에 속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여러분을 위해 남겨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머니로 부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생명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AAP 1965, 35)

**화답송**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추었도다

*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추었도다.

요한은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기뻐 뛰었도다.

* 주님 앞에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추었도다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께 의탁합시다**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예수님과 당신의 양떼 중에 한 마리 양이 여기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저는 길 잃은 양이오니 죄인들의 피난처시여, 저를 구하소서. 하늘나라의 길을 찾고 있사오니 착한 의견의 어머니, 저를 비춰주소서. 저는 겁 많고 연약하오니 능하신 동정녀여, 저를 당신의 두 팔에 안아 데려가 주소서. 저는 이리에게 쫒기는 어린 양이오니 구세주의 어머니, 저를 보호해 주시고, 상처를 낫게 해주소서. 당신 태중의 아들이신 성체 예수님으로 저를 양육하소서. 저는 목자 예수님과 당신을 사랑하는 한 마리 양이오니 선한 목자 마리아님, 항상 더 당신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죽을 때에 저를 받으시어 양순하고 충실했던 양무리에 들게 하소서.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선한목자어머니 마리아께 드리는 코론치나 3번))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빛에 오기 전에

예언자 요한은 그의 어머니 태중에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당신의 아들을 알아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모르면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약속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운데

기뻐 뛰게 하소서. 아멘.

**셋째 날– 9월 2일 토요일**

*“마리아와 막달레나는*

*부활의 신앙을 세상에 가져온다”*

**성령청원**

**경청**

**요한복음에서**(19,25-27)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교회의 가르침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머니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모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처럼 아주 친밀합니다.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분리할 수 없는 관계는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도록 미리 선택받은 마리아가 갈바리오까지 아주 가까이 성자 곁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명을 함께 했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께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모성의 체험과 성자와의 친밀한 관계로 양육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대한 신앙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마리아는 항상 함께 했으며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직무이며, 교회의 모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완전한 제자이시며, 첫 번째 완전한 신앙인이시며, 순례하는 교회의 모델이신 마리아는 교회의 모성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 주시며, 모든 인류를 향한 모성적 사명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십니다. 분별력과 모성적인 그분의 증거적 삶은 교회 초기부터 함께 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그분은 또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며,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인류와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게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2015년 1월1일 강론에서)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가르침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소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웅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합니다! 마리아의 성심이 십자가 아래서 고통의 칼에 찔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 가장 고통스런 희생을 감내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모성도 영적 순교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PrP V, 1952, p. 243)

**화답송**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서 계셨다

* 제자의 어머니는 믿음 안에서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새로운 날의 새벽을 기다립니다.

* 제자의 어머니는 믿음 안에서 당신을 지켜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제자의 어머니는 믿음 안에서 당신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께 의탁합시다**

선한 목자의 어머니요, 저의 어머니 마리아님, 갈바리아에서 당신이 받으신 고통을 관상합니다. 거기서 당신의 아들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고 그분의 양떼와 교회의 목자들을 당신 손에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믿는 모든 사람과 사제들을 맞아들이고자 마음을 여셨습니다. 당신은 초대교회를 붙들어주셨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시켰으며, 모범으로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항상 하느님 백성을 돌보시어 당신을 통하여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많은 성인이 나게 하시며, 악의세력을 눌러 이기셨습니다.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더욱 온순하고 신심 깊고 굳센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능한 전구로 한 목자 아래 하나의 양 우리만 있게 하소서. 교황을 격려하시고, 신앙의 스승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시며,영혼의 모든 목자를 인도하소서.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께 드리는 코론치나 2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은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으니,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유혹을 이겨내도록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특별히 올해 수도생활**

**25주년, 50주년, 60주년을 맞이하는 수녀님들께 우리의 기도와 축하를 드립니다.**

|  |  |
| --- | --- |
| **25°**  sr Paola COMBERLATO (CO-VE-ME)  sr Marlene DE SOUZA (BR CdS)  sr Sonia HERNANDEZ (PI-AU-SA-TA)  sr Raquel MARIANO DE SOUZA (ICN-MZ)  sr Angela NAPOLI (GG)  sr Lucia PIAI (GG) | |
| **50°**  sr Leda BARILLI (BR CdS)  sr Isabel BREDA (BR CdS)  sr Giulia CANNONERO (ICN-MZ)  sr Nilva COSTELLA (BR CdS)  sr Pasquina CREPALDI (ICN-MZ)  sr Renata DALLE LASTE (BR CdS)  sr Pierina DELLA SALA (ICS-AL)  sr Rosa ELEFANTE (ICS-AL)  sr Verginia FABRO (BR CdS)  sr Adriana FOGAÇA (BR SP-GA)  sr Luisa GARIBOLDI (ICN-MZ)  sr Giannina GERMANI (ICN-MZ)  sr Luigina PAVANELLO (ICS-AL)  sr Grazia PIETRIBIASI (ICN-MZ)  sr Dina RANZATO (ICN-MZ)  sr Lazara VIEIRA CAMARGO (BR SP-GA) | **60°**  sr Anna BIN (ICN-MZ)  sr Anna BORCHIA (ICN-MZ)  sr Pacis CAVAZZUTI (ICN-MZ)  sr Elisa COMERLATO (BR CdS)  sr Candida DE ANGELIS (PI-AU-SA-TA)  sr Pierina IOPE (BR SP-GA)  sr Giovannina LACONI (ICN-MZ)  sr Francesca LONGONI (BR CdS)  sr Daniela PASETTO (ICN-MZ)  sr Claudia PIEMONTE (ICN-MZ)  sr Iolanda PIVA (BR CdS)  sr Ignazia POMARO (ICN-MZ)  sr Maria Rosaria RIBEIRO (BR SP-GA)  sr Fernanda SAGGIORO (ICN-MZ)  sr Cecilia SERRI (ICN-MZ) |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